

정수기의 뜨거운 물, 어린이 화상사고 조심!

수질오염을 우려해 수도물을 끓이는 대신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. 집뿐만 아니라 백화점, 식당,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이를 흔히 볼 수 있다. 겨울철을 맞아 온수를 쓰는 경우가 급증하지만 안전사고, 특히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.

① 온수 이용시 주의 사항

- 제품 구매시 온수 부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온수의 온도는 고온이므로 물을 받을 때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.
- 어린이, 특히 유아의 경우 온수를 혼자 받도록 두지 말고 보호자가 받아준다.
- 온수의 유출부는 가급적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.

② 화상 입었을 때의 응급조치

- 119에 응급환자 신고를 하고 조속히 응급조치를 한다.
- 상처 부위를 즉시 차가운 물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식혀준다. 그러나 얼음 찜질은 피부세포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.
- 가능하면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.
- 화상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화상에 적합한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 상처 부위를 감싸준다(절대로 탈지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)
- 간장이나 된장을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, 오히려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. 

